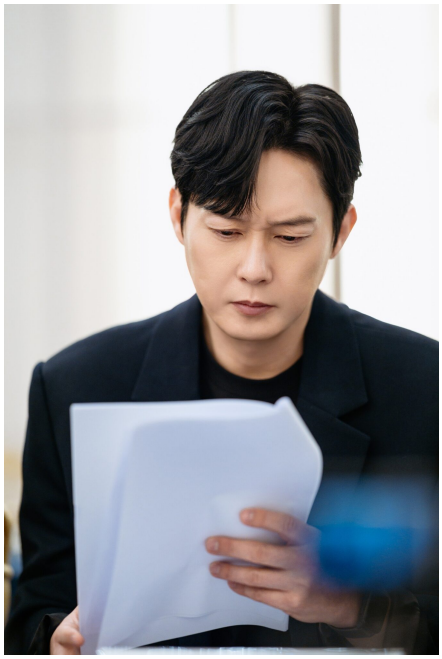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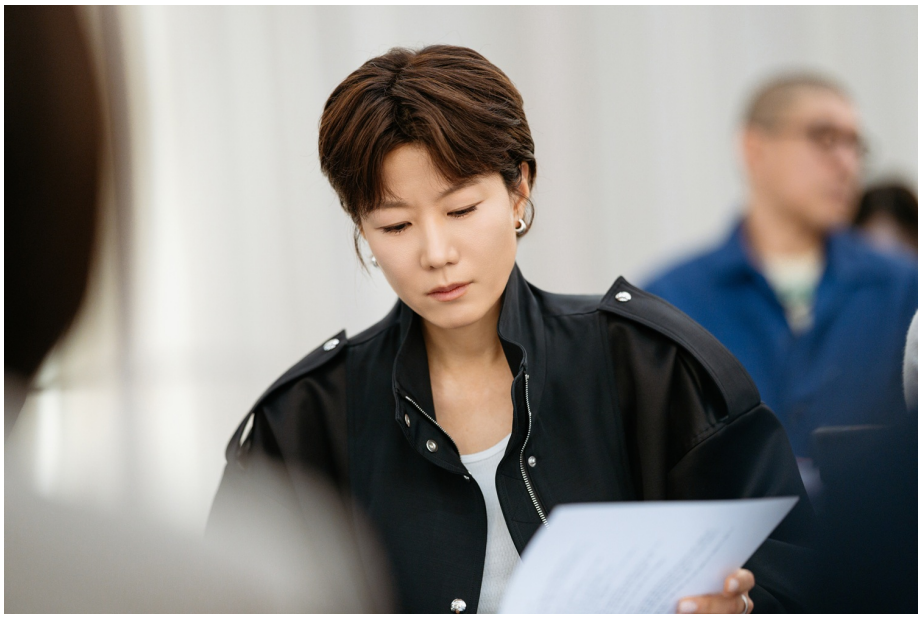
coupang newsroom

# 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 시리즈 '가족계획' 시즌 2 대본 리딩 현장 공개! 흥행 시리즈의 귀환, 확장된 이야기로 돌아왔다!

2026. 4. 17.

'브레인 해킹'이라는 독보적인 설정과 스토리텔링으로 쿠팡플레이 시리즈의 레전드작으로 자리매김한 <가족계획>이 시즌 2로 돌아온다. 쿠팡플레이가 선보일 최초의 시즌제 시리즈로 주목받는 가운데, 한층 확장된 세계관과 깊어진 캐릭터 서사를 예고한 대본 리딩 현장을 전격 공개했다.





**쿠팡플레이 시리즈 <가족계획> 시즌 2**(작가/감독: 김정민 | 출연: 배두나, 백윤식, 박병은, 로몬, 이수현 | 제공: 쿠팡플레이 | 제작: 트루로맨스, 비온드스토리, 보더리스필름)**는 과거를 숨긴 채 새로운 도시에 온 영수네 가족이 더 거대해진 악의 세력으로부터 서로를 지키기 위해 지옥 같은 복수를 완성해 나가는 이야기.**

대본 리딩 현장에는 연출 및 각본을 맡은 김정민 감독, 배두나, 백윤식, 박병은, 로몬, 이수현을 비롯한 주요 제작진과 출연진이 모였다. 시즌 1부터 호흡을 맞춰온 '가족'들의 합은 한층 견고해진 몰입감을 이끌어냈고, 새로 합류한 배우들의 날 선 연기가 더해지며 리딩 현장을 단숨에 뜨거운 열기로 달궜다.

먼저 시즌 1의 흥행 주역 **배두나, 백윤식, 로몬, 이수현**은 다시 한번 '가족'으로 뭉쳐 이야기의 중심을 잡는다. '브레인 해커' 엄마 '한영수'(배두나)는 냉철한 리더십을, '백강성'(백윤식)은 괴팍하지만 묵직한 존재감을 이어가는 가운데, 아들 '백지훈'(로몬)과 딸 '백지우'(이수현)이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깊어진 가족의 결속을 그려낸다. 여기에 '영수'네 가족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삼촌 '백철용' 역으로 **박병은**이 합류해 묘한 긴장감을 더할 예정이다.

이어 시즌 2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새로운 빌런 라인업이 공개되어 기대감을 증폭시킨다. **박호산, 전혜진, 강기영, 백주희, 신성민, 이중옥** 등 대표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합류,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된 '거대 악'의 체계를 구축하며 '영수'네 가족을 압박하는 빌런 군단으로 활약한다.

대본 리딩 이후 **배두나**는 "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첫 시즌보다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다"고 전했고, **백윤식** 또한 "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"고 소감을 밝혔다. **로몬**은 "<가족계획>을 사랑해 주신 덕분에 다시 모일 수 있

어 설레고 감사한 마음"이라고 전했으며, **이수현** 역시 "익숙한 가족과 새로운 배우들이 만나 더욱 기대되는 현장이었다"고 소감을 밝혔다. 새로 합류한 **박병은**은 "시즌 1을 인상 깊게 본 작품이라 합류하게 되어 설레고,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싶다"며 기대를 더했다.

<가족계획>은 독창적인 세계관과 강렬한 전개, 블랙코미디적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서사로 국내외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아왔다. 배두나의 여우주연상 수상과 유럽 최대 시리즈 축제 '시리즈 마니아 페스티벌' 초청을 통해 이미 압도적인 작품성을 입증한 바, 새 시즌은 더욱 확장된 세계관과 인물 간의 강렬한 충돌을 통해 한층 깊어진 서사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.

거대해진 스케일과 새로운 캐릭터들의 만들어낼 폭발적인 시너지로 기대를 모으는 <가족계획> 시즌 2는 현재 촬영 중이며, 2026년 하반기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. <가족계획> 시즌 1은 쿠팡플레이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.

**취재 문의** media@coupang.com